

이벤트 등의 활동, 관광진흥 계속에 관하여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역사상 처음인 대재해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온 힘을 다해 구조, 복구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오사카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손잡고 스텝 파견과 물자 제공, 재해자 받아들이기, 의원금 모으기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지진 발생 후 이벤트나 행사 등이 중지되고, 네온이나 광고 조명 등을 끄는 등, 후민활동 전반에 걸쳐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이나 식사예정 취소가 연이어, 관계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거리 전체의 활기가 없어져, 소비가 낮아지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때, 오사카는 전국적인 지원을 받아서 복흥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면한 오사카가, 이번에는 선두에 서서 장기적·계속적으로 재해자와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오사카 자체의 경제·사회가 위축되어 버린다면, 재해자와 재해지역을 지원할 힘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지진으로부터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면한 지역이 평정을 유지하고 재반활동을 계속함으로써 힘을 길러, 재해자와 재해지역 지원과 나라 전체의 복흥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사카의 기업, 행정, 민간단체 등이 일체가 되어 이러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오사카후, 오사카시, 사카이시, 오사카상공회의소는 재차 다음과 같은 점을 실천해 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상시 활동을 계속하고, 오사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활기차게 하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를 재해자와 재해지역 지원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지하지 않고 실시하겠습니다.
- 일본성장의 토대가 될 해외로부터의 유객촉진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사카·간사이의 매력을 전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

오사카후지사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시장	히라마츠 쿠니오
사카이시장	다케야마 오사미
오사카상공회의소회두	사토 시게타카
사카이상공회의소회두	마에다 칸지